

SAMC | LAW REVISION

1. 관세청, 'FTA 사후적용 전자심사 제도' 도입

관세청은 현재 평택세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FTA 사후적용 전자심사 제도'를 10월부터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FTA 사후적용을 받으려면 수입납세신고 정정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각 세관 심사정보과 또는 납세심사과 직원들이 심사를 진행했다. 형식적인 요건을 검증하는 것이지만, 그 건수가 많아 처리기간이 50~60일 가량 소요됐다. 이처럼 애로사항이 많아 FTA 사후적용 건에 대해 위험도를 반영한 전자심사 프로세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Read More](#)

2. 조미김 등 조제 식용 해초류 품목분류 '제2106호 → 제2008호' 변경

세계관세기구(WCO)가 제60차 HS 위원회에서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해 회원국에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해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의 품목분류를 제2106호에서 제2008호로 변경했다. 마스크팩과 탄소난방필름의 품목번호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9월 19일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같은 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Read More](#)

3. 사료용 완두·옥수수 등 한·중미 FTA 용도세율 적용대상 지정

관세청은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사료용 완두·옥수수 등 신규 용도세율 적용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먼저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별표 1의1]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중 12. 완두, 22. 옥수수, 51. 기관오일, 52. 기관오일 등 31개 품목의 세종부호에 'FCE'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별표 1의2]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 중 '38. 플러그와 소켓(제8536.69-1000호)'의 세종부호에 'FCE'를 추가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관세청, 몽골과 AEO MRA 체결 ... 현지 통관환경 개선 기대

관세청은 9월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몽골 관세청과 AEO MRA를 맺었다고 밝혔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주목받는 신흥 교역국으로, 우리 관세청은 몽골과의 MRA를 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AEO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對몽골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컴퓨터, 광물성 연료, 전기 제품, 담배, 정유, 철강 제품, 광학 의료 기기, 주류·음료,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Read More](#)
2. 美, 18일 유럽산 제품에 25% 관세 발동...글로벌 성장둔화 우려 ↑

미국이 18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와인과 치즈 등 총 75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발동한다.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미-EU 갈등까지 악화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세 대상은 총 160개 품목으로, 프랑스산 와인과 영국산 위스키 및 각국 치즈 등 농산물에 25%, 항공기에 10%의 관세가 추가된다.

[Read More](#)
3. 美-日, 새 무역협정 서명...자동차 관세는 '그대로'

미일 정부가 농축산물과 디지털 상품을 골자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미국에서는 행정부 권한으로 협정이 발효되고 일본에서는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발효될 전망이다. 7일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주미 일본 대사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 협정은 일본이 일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다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한·중미 FTA 10월 1일 발효 전체 품목 수 95% 이상 관세 철폐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됐다. 이번 한·중미 FTA에 따라 양측은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자동차, 철강 외에 화장품, 의약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도 중미 시장을 개방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중미공화국은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으로, 한·중미 FTA 자국 비준절차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와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협정이 우선 발효한다.

[Read More](#)

2. 11월 1일 한·영 FTA 발효 대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심사

관세청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對영국 수출기업이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발효 전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발효 후 인증수출자 신청 및 심사를 진행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11월 1일 발효 예정인 한·영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11월 1일 발효 예정인 한·영 FTA에 적용할 관세율 구분부호를 마련했다.

[Read More](#)

3.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내년 정식 서명 및 발효 예정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 기존 한·ASEAN FTA에 비해 인도네시아 측 시장 개방 수준을 약 13%p(80.1% → 93%)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 여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한·인도네시아 CEPA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1) 엽산의 원료 추가 (메틸테트라하이드로엽산글루코사민 추가)
- 2) 히알루로산(시행일 : 2020.05.01) 및 빌베리 추출물(시행일 : 2021.03.01) 고시형 원료로 기준 규격 추가 등재
- 3) 녹차추출물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를 카테킨 규격 시험 시 해당량 확인 할 수 있도록 규격 신설과 함께 일일섭취량 삭제.
- 4)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B1, 콘드로이친황산, 바틸알콜, 안트라퀴논계화합물, 총 플라보노이드 및 포스파티딜세린등 8종에 대한 시험법 개선과 비타민A와 비타민E의 동시분석법 및 메틸테트라 히드라엽산글루코사민등 2종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함. (시행일: 2020.10.16)

[Read More](#)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1)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유형 추가 (음료베이스, 과채가공품)
- 2)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Ph 4.6이하의 산성식품은 살균으로도 제조 할 수 있도록 개정.
- 3)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반가공 빵제품에 대한 식중독균 규격과 식품접객업소에 사용하는 빵제품에 대한 대장균 규격 합리적으로 개정.
- 4) 식품원료 목록 개정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
대리석덩이버섯(Tuber borchii Vitt.), 이색장어(Anguilla bicolor),
Brown crab(Cancer pagurus), Common edible cockle(Cerastoderma edule),
European hake(Merluccius merluccius), European squid(Loligo vulgaris)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 Gluconacetobacter europaeus
 -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 핑거라임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1)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규정 명확화
- 2)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효소제 등 식용근거, 제외국 인증현황등을 근거로 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 3) 보존 및 유통기준 중 서늘한 곳 용어 개선
- 4) 카페인 사용기준을 무수건조물로서 적용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